

# 사설

지난 2006년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간성을 흘러 알프스스키장의 슬로프가 멈춘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매년 2월 개최되던 명태축제도 가을로 개최시기를 옮기면서 이제 겨울철에 관광객을 유입할 이렇다 할 이벤트도 없다보니 겨울 관광객들이 북적대던 알프스스키장이 새삼 그립다.

고성지역은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에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나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도내 다른 지역이 겨울축제로 호황을 누리는데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침체되고 있다. 내륙보다 다소 따뜻한 기후와 많은 축구장으로 인해 축구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찾아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알프스스키장 문제는 현재 군정을 이끌고 있는 황종국 고성군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들도 말을 아끼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들의 기억으로 알프스스키장은 2006년 폐쇄이후 그동안 두 차례 재개

장의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2008년 신성건설에 의해 리모델링이 추진되던 시기이며, 다른 한번은 2010년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알프스씨브리조트 등 3개 회사가 개발에 뛰어들었을 때이다. 당시만해도 대다수 고성주민들은 스키장이 곧 문을 열 것으로 믿었다.

특히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정확

알프스스키장을 연내에 개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으나 알프스스키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스키장 개발의 키는 고성군이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고성군은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살려 놓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에도 "잘되면 올해내로 재개장이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 말을 믿을 주민은 거의 없다.

흘리는 고성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에 속한다. 주민들 중 흘리에 가보지 않은 주민들도 상당수일 것이다. 시간이 나면 겨울이 다가기 전에 흘리에 한번 다녀올 것을 권한다.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알프스스키장이 보이는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스키장은 삶 그 자체다. 따라서 이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상 스키장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

'민심을 얻으면 세상을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했다. 알프스스키장과 관련한 흘리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이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잠재울 수 없다.

## ‘양치기 소년’ 이 되어버린 행정

하계 두달 남겨둔 2010년 4월 2일, 마치 철저하게 기획된 것처럼 고성군청에서 '흘리 알프스씨브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던 당시만 해도 대다수 주민들은 그해 겨울이면 스키장이 재개장될 것으로 확신했다. 덩달아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며 주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황종국 당시 군수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흘리 주민들은 알프스스키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고성군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곧 재개장 된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다보니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로 재개장이 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생각된다.

흘리 주민들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연내 재개장이 안되면 사업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 조건 없이 기부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즉 주는 것 받는 마음 모순개념이 서로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조직 통일 시키고자 하는 작용이라 생각된다.

기부란 기부자가 어떤 일을 보조적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어줌을 뜻한다. 공공사업 교회 사원 향교 기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자진하여 내는 것.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장학회 동창회 등 각종 회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절차로는 서신 광고 기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 재산을 공공사업 자선사업을 위하여 자진하여 내놓는 재산인데, 이런 기부 행위를 높게 평가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99% '좋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개인의 절대재산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기부자의 노후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가칭 '기부자의 연금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우리 민족의 생활습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하는 많은 돈을 번다면 어디에 사용하겠는가'하는 질문에 99%가 '좋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좋은 곳에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마음과 행위의 결집을 기부라고 하겠다.

기부행위는 기여 공헌 증여 기증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다. 이 행위는 경제적 약자 국가 사회적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에서부터 싹텄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하나의 과제로 새로운 가치 있는 기부 문화를 창출하여 적정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부자의 기부목적 외에 변태적

회계 분식회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감독하여 기부된 금품이 눈먼 금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과 물품을 모집한 공공단체는 기부자의 출연목적 이외의 사용 행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준엄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기부 문화 확산, 체험교육 등 필요

우리에게 주는 욕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말과 한줄기 푸른 산 경치는 아련하고 옛사람의 논밭은 뒤의 사람이 갖는다. 뒤의 사람이 가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다음 땅을 소유할 사람이 또 있다. 재물은 돌고 돈다.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끝없는 욕심을 버리는 장기기증을 최후의 인생승자요 보람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공수래공수거다.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기부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기부문화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하여야 한다. 기부문화가 발전 향상되려면 이제라도 지위고하와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활성화하여 자선냄비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 저금통 열어 성금내기 등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국가적 예우는 물론이고 사회적 명예권을 줘야 한다.

산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너는 내 길을 갈 수 없고 나는 네 길을 갈 수 없다. '일회일우 할 것 없이 오직 나는 나의 길을 가야한다. 내가 옳고 선하고 의롭다고 믿는 길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용왕매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맹자는 설파하였다.

사람은 자기중심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동물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약이 되는 줄도 모르고 뱉는다. 이해관계는 이념보다 강하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 거듭나는 새로운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 새로운 기부 문화의 지향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 직 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주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웅 김태극 박선에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